

이사장님,

원고는 여성문화예술기획(대표 안혜경)이 준비해달라는 분량을 맞춘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수정하여 사무실 팩스로 넣어주시면 제가 출근하는 대로 확인하여 보내겠습니다.

실은, 어제 밤에 작업을 못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초안을 만드느라 아직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여 전화를 주시려면 핸드폰으로 주십시오.

이은희 올림

핸드폰 : [REDACTED]